

‘치유의 숲’ 축령산 둘레길 만든다



장성군 790ha 규모… 27일 사전답사 자료수집

금곡영화마을·모암마을·추암마을 등 3개 구간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이 790ha 규모의 편백나무 숲을 감아도는 축령산 둘레길 조성에 나선다.

장성군은 ‘치유의 숲’ 축령산의 둘레길을 아이템으로 새로운 관광 자원화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군은 ‘2011년 길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27일 문화관광과 전 직원이 ‘축령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둘레길 코스 사전 답사를 실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군은 ▲금곡 영화마을 ▲모암마을 ▲추암마을 등 총 3개 구간에 각각 1일 코스와 반일코스로 나눠 ‘축령산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령산내 관광객 분산으로 산림보호 효과는 물론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건강걷기 여행이 관광여행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축령산 둘레길은 기존의 둘레길과 다른 매력으로 관광객을 유혹하게 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추진해 장성군의 100만 관광객시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서삼면과 북일면에 걸쳐 있는 축령산(높이 620.5m)은 춘원 임종국(1915~1987) 선생이 1956년부터 1987년까지 사제를 털어 편백나무 숲을 가꾸었으며 ‘22세 기를 위해 보전해야 할 숲’,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광양 재해영향성 검토없이 주택 15동 수리

감사원, 지자체 재난·재해 대비실태 지적

전남도내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재해 대비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내놓은 ‘재난관리 및 재해대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해 2월 관내 부지(2만1406m²)에 단독주택 15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접수받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축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신고인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건축신고를 수리하는가 하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재해 예방시설을 반영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 2명

에 대해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고흥군은 고흥읍 낙계리 일대 30만m² 봉황산지구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 행위를 제한해놓고 39건의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지역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112개동의 주택 및 상가 침수가 잇따른 피해를 입었다.

순천시의 경우 매곡동 북부시장 인근 등 17개소를 상습침수지역으로 파악해놓고도 정작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점검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는 게 감사원측 설명이다. 순천시는 이같은 이유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저전동 산 1번지 저전지 구 등 3개소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만 현황파악을 할 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순천시 주암면 광천교와 환전면 비촌리 등 도내 5곳에 설치된 재해문자 전광판의 경우 설치 위치가 부적절해 쉽게 알아보지 못하거나 경보음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외 고흥(15명·2100만원)·순천(14명·1650만원)·화순(11명·900만원)·광양(3명·300만원) 등은 2007년과 2009년 태풍·호우 피해 현황을 파악하면서 수급자격이 없는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부당 지급해 환수토록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24일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선착장에서 어민들이 갓 채취해온 물김 출하작업을 하고 있다.
분격적인 일반 김 수확시기는 다음달 중순부터다.

<완도군 제공>

신안 흑산도에 대규모 위판장 조성

내년초 완공… 우력 전량 위판 등 서해 어업전진기지로

조기, 흥어, 갈치 등 서해 주요 어종 어장과 인접한 신안군 흑산도에 대규모 위판시설이 설치된다.

24일 신안군수협에 따르면 위판장이 없어 부두에 특산물인 흥어 등을 끌어놓고 위판을 했던 흑산도에 10억원을 들여 내년초 완공예정으로 1000여㎡ 규모의 위판시설을 설

치한다.

수협은 위판장이 설치되면 주요 어종 조기와 우력 등 흥어, 전복, 해삼은 물론 미역, 톳 등 해조류까지 수매 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생산액이 400억원에 이르는 양식 우력을 전량 위판해 전국 유통시장에 공급할 계획도 세워놓

고 있다.

주영운 신안군수협 조합장은 “흑산도 인근 해상은 신안 특산물인 흥어를 비롯해 조기와 갈치 등 서해 주요 어종의 황금어장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흑산도에 위판시설이 들어서면 목포와 진도 등지로 갔던 선주들이 가까운 흑산도에서 위판하게 되는 등 어업 전진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38명의 전문 관리인원이 종사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혁기자

어르신들 다양한 복지혜택 누리세요

함평 노인전문요양원 내일 개원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함평군은 노인성 질환자에게 보다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군립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26일 개원식을 갖는다.

군은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학교면 월산리 일원 무지개 마을에 부지 5365㎡·전체 건축면적 1694㎡, 지상 3층 규모의 노인전문

요원을 건립했다.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이 위탁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정원은 71명으로, 장기요양 1·2등급 및 치매, 중증, 뇌혈관질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노인전문요양원에는 물리치료실과 침실, 주방, 사무실, 목욕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의 공간이 갖춰져 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간호

쓰면 쓸수록 내고장 인재 양성에 도움

‘나주 사랑카드’ 이용액 0.2% 장학기금 조성

“나주 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지역인재 양성기금이 적립됩니다.”

내고장 사랑운동 확산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내고장 사랑운동’ 협약식이 지난 23일 나주시청 2층 이화실

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성훈 나주시장과 한국일보 이종승 사장, KB 호남지역본부 박종섭 본부장, 김철수 나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김인숙 나주 교육장, 강대중 나주소방서장을 비롯

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고장 나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1계좌당 1만원, 카드 이용액의 0.2%가 장학기금으로 조성돼 지원될 예정이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내고장 사랑운동으로 발생한 기금이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등 뜻 깊은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관내 기관단체와 출향 항우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강진 훈합발효사료공장 준공

2만4천t 생산… 본격 가동

강진군에 국내산 조사료 및 부원료를 활용한 완전혼합 발효(TMF) 사료 공장이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강진군은 지난 23일 성전면 금당리의 TMF 사료공장에서 황주홍 군수를 비롯해 김은식 강진군의회 의장, 기관 단체장과 축산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투자업체인 전남사료는 지난 2009년 11월 착공해 총 사업비 30억여원을 들여 전체 면적 2천463㎡ 규모로 1년여 만에 공장을 완공했다.

이 공장에서는 섭유질 가공 발효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연간 2만4천t의 ‘남도 쇠죽이’라는 상표로 TMF 사료를 생산하게 된다.

남도 쇠죽이는 전남사료가 개발한 고유 상표로 원료를 살균하고 엷어줌으로써 소에 안전한 청정 사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반 배합사료와 달리 최적의 생물 공학적 방법으로 혼합한 원료를 발효시켜 주기 때문에 한우의 소화율을 높여 암소의 번식률 향상과 솔아지 설사 최소화 등에 유리하고 청보리나 벅질 등을 따로 줘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문진자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디가구주택 • 서구 풍암동 대지 61평
건평140평 3층건물 신축 2억 9천만

전원주택 • 담양군 금성면 대지 340평
건물80평 3천 6백만

• 광산구 서봉동 대지 193평
1층주택 1억 9천 5백만
(광산호대부근)

아파트 • 서구 치평동 24평형 3층 6천 9백만

주유소 • 광산구 장덕동 LPG주유소
감정가 26억 최저가 18억

근린주택 • 동구 대인동 상업지구내
1층상주 1억 2층 6천만원

기타·공장 • 나주시 금천면 냉동창고
토지 370평 건물 183평 6천만

▶이와 상당불건, 쌍방 다량보유, 소액투자상당
광주 서구 마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한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 사거리)

화정동 대주피오레 66형 미입주 물건 다량보유

전세대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중앙공원 4계절 경관 및
아파트 단지와 연결된 공원 산책로...

◆ 아파트 매매

▶ 대형평형의 가장 합리적인 가격 [평당 540만원]
▶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50%, 2010.12.31까지]

▶ 1개월 내 잔금, 원납시 입주지원금 600만원 지급

◆ 아파트 임대

멀게만 느껴졌던 대형평형 임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월90만원 [월세 조정기]

▶ 밸코니사 시공

▶ 2년 후 분양가능

◆ 화정동 백일지구 상가건물 매매

화정동 [구] 서광주세무소 건너편

농협·국민은행(대주피오레)

도로변 로드샵 상권 형성

▶ 서광주 농협 앞 2층 건물 매매 7억 5천만원